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요약본]

2025. 08



1. 서론

- 제주도는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BR, Biosphere Reserves), 2007년 세계자연유산(WR, World Natural Heritage), 2010년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을 지정받았고, 2006년 물영아리오름 등이 람사르 습지(RS, Ramsar Site)로 지정됨에 따라서, 중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네스코 중기전략 이행과 기후변화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등 국제적 차원의 환경보전 정책에서 국제보호지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 유네스코는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 :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IDA :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였다.
- 정부는 ‘2016년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모델 개발 및 국제 네트워크 센터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을 계기로, MIDAs 보전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승인(’19. 6.), 정부·유네스코 협정서 체결(’24. 2.), 재단법인 설립(’24. 4.), 센터 개소식(’25.04.29)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SDGs, K-M GBF 등 글로벌 목표 및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보호지역 관리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¹⁾인 GCIDA(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며, 조직 및 재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1)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C2C, UNESCO Category 2 Centre)는 회원국 정부와 유네스코와의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서 특정 분야에서 연구, 훈련, 역량강화를 수행하며, 유네스코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지역·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 GCIDA 현황

2.1. 주요 경과

- 2012. 09.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 채택
- 2015. 04.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모델 개발 관련 국제워크숍 개최 → 국제 네트워크 및 센터 설립 제안(제주도)
- 2016. 06. 국제보호지역 관련 유네스코 C2C 설립 건의(제주도→ 환경부)
- 2019. 06. 유네스코 현지 실사단 제주 방문
- 2019. 06. GCIDA 대한민국(제주도) 설립 결의(40차 유네스코 총회)
- 2021. 09.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 시범 운영(제주도)
- 2023. 03. GCIDA 설립 추진단 TF 구성(환경부)
- 2023. 12. GCIDA 설립(안) 국무회의 통과
- 2024. 02. 대한민국 정부-유네스코 협정서 체결
- 2024. 04. GCIDA 재단법인 설립(4.11.)
- 2025. 04. 센터 개소식(4.29.)

2.2 조직 및 예산 현황

2025년 7월 기준 GCIDA 운영조직은 이사회와 감사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상위 의사결정기구와 그 위임을 받아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기획행정팀, 연구개발팀, 훈련교류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은 총 12명으로 센터장 1명을 비롯하여 팀장 2명, 팀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예산액은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다.

3. 국제보호지역 관련 국제 동향

3.1 IDA/MIDA 지정 현황 및 동향²⁾

국제보호지역(IDA)은 세계 또는 지역 차원의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을 일컫는 용어이다. '세계유산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계

2) Reference : IUCN, (2016) Managing MIDAs: Harmonising the management of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획',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계획',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designated) 지역이다(IUCN, 2016).

한편,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은 IDA 2~4 가지에 대해서 전체 또는 일부가 중첩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별 IDA의 지위는 고유의 관리기준과 운영체계를 요구하지만, 동일 공간에서 중복 운영될 경우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MIDAs는 이러한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리방식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3.1.1 세계자연유산

- 설립 목적: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통칭 『세계유산 협약』은 자연보전과 문화재 보존의 개념을 하나의 문서로 연계한 것이다. 인류가 창조한 문화유산과 자연이 빚어낸 자연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가지며, 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제시하여 미래세대에 이를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목표 :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지역과 문화지역을 확인하여 보전한다.
- 연혁 :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적 운동이라는 아이디어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두되었다. 이 협약은 두 가지 별개의 운동을 하나로 합치면서 발전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문화지역의 보존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연보전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에는 단일 조문을 작성하여 모든 관련국들이 이에 합의하였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은 1972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최초 20개 당사국의 비준에 따라 1975년에 발효되었다.
- 법 체계: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확인하고 보전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여기에는 잠재적 유산 확인이라는 당사국의 의무와 그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 관리 체계: 『세계유산협약 및 그에 따른 세계유산목록』은 파리(프랑스)에 소재한 유네스코 본부 문화 섹터 산하의 세계유산센터가 관리한다.
- 참여국(당사국) 총수: 196개
- 등재국 총수: 168개
- 세계자연유산 등재수(2025.05월 기준) : 231개

3.1.2. 생물권보전지역

- 설립 목적: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B) 계획』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이다. MAB 계획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제학, 교육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부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주요 목표: 『MAB 계획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등재된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지속가능성 지원 지역을 위한 과학”으로서, 사회 및 생태 시스템 간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제적 시범지역의 기능을 담당한다.
- 연혁: 1971년 11월 유네스코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회의³⁾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MAB 계획 자체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부간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되었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정책결정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적 지식의 원천 역할을 해 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중요 MAB 프로젝트 영역(총 14개) 중 “자연지역과 그 권역 내 유전 자원의 보전”이라는 제 8영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76년 최초 지정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MAB 계획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 법 체계: 생물권보전지역은 각국 정부가 신청하며 해당 지역이 위치한 국가의 주권 영토로서 계속하여 존재한다. 그들의 지위는 국제적 인정을 받는다. MAB 국제조정이사회(MAB-ICC)의 결정에 따라 정부간 『MAB 계획』 하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한다. 1995년 유네스코총회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세비야 전략』과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을 승인하였으며, 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과 공식 인정을 위한 “연성법 체계”로서 기능한다. 유네스코의 194개 회원국과 9개 협력회원이면 누구나 등재를 제안할 수 있다
- 관리 체계: 『MAB 계획 및 그에 따른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는 유네스코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 자연과학 섹터 산하 생태계 및 지구과학 분과(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내에 설치된 국제 MAB 사무

3)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스톡홀름 회의’)로, 현대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국이 관리한다.

- 등재국 총수: 136개
- 등재수(2025.05월 기준) : 759개

3.1.3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설립 목적: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공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중요시한다
- 주요 목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인류가 살고 있는 동적인 지구라는 맥락에서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기타 모든 양상과 연계하여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한다.
- 연혁: 지질공원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지구 역사에 있어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경관과 지형은 우리 행성의 진화 양상의 주된 증거이자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결정 요인이기도 하다. 2004년에는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의 17개 당사국과 중국은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GGN)를 창설하였다. 유네스코 총회는 2015년 제38차 회의에서 IGGP(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국제지질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 산하 세계지질공원을 모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법 체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총회가 제38차 회의에서 승인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되고 기능한다. 유네스코내 194개의 회원국과 9개의 협력기구라면 누구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리 체계: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은 IGGP에 속하며, IGGP는 유네스코와 세계지질과학연맹(IUGS)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 자연과학 섹터 산하 생태·지구과학 분과 내에 설치된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 등재국 총수: 50개
- 등재수(2025.05월 기준) : 229개

3.1.4 람사르습지

- 설립 목적: 『람사르협약』으로 약칭하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은 습지와 그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가 행위와 국제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정부간 조약이다.
- 주요 목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의 일환으로 지역과 국가, 나아가 국제 차원의 협력을 통해 모든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한다.
- 연혁: 『람사르협약』은 세계 각국의 정부 간에 체결한 현대적 환경 협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에 물새의 습지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고 파괴되는 것을 염려한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이 이 조약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1971년 2월에 이란의 람사르라는 도시에서 채택되어 유네스코(협약의 출원기구)가 일곱 번째 당사국으로 그리스의 가입을 인정한 뒤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 법 체계: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보전하고 유지하며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거나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가입국들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이다.
- 관리 체계: 람사르협약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국제 환경협약으로, 사무국은 스위스 글랑(Gland) 소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본부 내에 위치하며, IUCN의 행정 지원을 받는다. 유네스코는 협약의 공식적인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 등재국의 총수: 172개
- 등재수(2025.05월 기준) : 2,538개

3.1.5 MIDAs

MIDAs는 IDA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복합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개별 IDA처럼 MIDAs만의 표준화된 설립목적, 연혁, 법체계, 관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263개의 MIDAs가 있다. IDA는 개별 정보에 대하여는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었으나, MIDAs에 대하여는 이들에 대한 구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전산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

3.2 IDA/MIDA 관련 주요 글로벌 전략

3.2.1 국제 정책 프레임워크

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포함한다. GCIDA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목표는,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4(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15(육상생태계 보전)이다. 특히 목표 15의 세부 목표는 산림, 습지, 토양 등 육상생태계 보전과 복원, 멸종위기종 보호, 외래종 관리, 생물다양성 가치의 국가계획 반영 등을 포함한다.

이는 GCIDA가 관리하는 (다중) 국제보호지역(IDA/MIDAs)이 단순히 경관이나 지질학적 가치 보존을 넘어 기후·생태계 서비스 관리 및 복원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GCIDA는 각 지역의 관리계획에 SDGs 이행을 반영하고, 국제적 모니터링 지표(예: 보호지역 면적,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등)를 활용하여 관리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생물다양성 협약(CBD)⁴⁾

CBD는 보호지역을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도구로 규정하며, 시기별 전략계획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2002-2010 전략계획: 보호지역 작업프로그램(PoWPA)을 통해 육상·해양 보호지역 확대를 목표로 제시.
-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 목표): 2020년까지 육상·내수면 17%, 해양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Target 11).
- 2022-2030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30x30 목표”(2030년까지 육상·해양 각각 30% 보전)를 채택.

GCIDA는 이러한 국제 목표를 IDA/MIDAs 운영의 전략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특히 ‘양적 확대+질적 관리’라는 글로벌 전환 흐름에 맞추어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IDA/MIDAs는 단순 국제보호지역의 유지가 아닌 지역사회 참여·과학적 모니터링·지속가능한 활용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CBD와 연계된 IPBES(정부간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플랫폼)는 과학-정책 연계의 핵심 허브로, GCIDA는 정책 자문 및 연구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있다.

4)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조약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유전자원 이익 공유를 3대 목표로 하며, 현재 글로벌 생물다양성 거버넌스의 핵심 틀을 이룬다.

3.2.2 UNESCO

가. UNESCO 중기 전략(2022-2029)

UNESCO의 최상위 전략문서인 「Medium-Term Strategy 2022-2029(41 C/4)」는 SDGs와 연계하여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보장
- 과학 협력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기후변화·생물다양성 포함)
- 인권·문화다양성·표현의 자유 보장
-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통한 사회적 변화 촉진

여기서 GCIDA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과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이다. UNESCO는 IDA를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oratories)”로 규정하며, 기후위기 대응·생물다양성 보전·수자원 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GCIDA는 UNESCO 전략에 따라 IDAs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청년 역량 강화·시민참여 과학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UNESCO는 아프리카, 성평등, 소도서개발도상국(SIDS)⁵⁾, 청년을 글로벌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GCIDA는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SIDS 대상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성평등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나. UNESCO 프로그램과 예산(42 C/5, 2024-2025)

UNESCO는 IDA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역 맞춤형 실험·학습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권장한다.

-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은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실험 무대
- 저비용 디지털 기술(TinyML 등)과 시민참여 과학 도입
- 국제연구 협력(유네스코 석좌·UNITWIN 네트워크 등) 강화

GCIDA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UNESCO의 국제 네트워크 속에서 정책·연구·교육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면 GCIDA의 위상도 향상될 것이다.

5) SIDS(소도서개발도상국): 유엔이 지정한 소규모 섬나라 중 경제적·지리적 취약성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면적이 좁고 인구나 자원이 제한적이며, 기후변화·해수면 상승·자연재해 등에 특히 취약하다.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선적 지원 대상 그룹으로 다루어진다. 군소도서개발국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례를 반영하여 소도서개발도상국으로 표기함.

다. 파트너십 및 재원 전략

UNESCO는 디지털 전환, 민간기업 및 NGO 협력, 국가위원회 활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GCIDA는 한국유네스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SIDS 지원과 연계한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재원 조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3.3 GCIDA 업무에 대한 시사점

- IDA 관리 역량 강화 필요: 지역 및 국가 간의 IDA 관리 역량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GCIDA는 현장 관리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MIDAs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 필요: IDA 별 정보는 유네스코 혹은 랍사르 사무국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나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MIDAs에 대한 정보 접근에 불편함이 있다. 이에 GCIDA는 MIDAs의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공유 허브를 갖출 필요가 있다.
- MIDAs 네트워크 구축 필요: 개별 IDA 내 네트워크는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거나 MIDAs 간 교류·협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GCIDA는 MIDAs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기적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MIDAs 관계자들 간의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MIDAs 유기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중첩 지정 사례의 증가에 따라 관리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GCIDA는 MIDAs의 유기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 유네스코와의 연계 강화 필요: GCIDA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서 UNESCO의 전략 및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성 평등, 청년 등 유네스코의 우선 순위를 반영 하여야 하며, 유네스코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사업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4. GCIDA 미션 비전, 가치 및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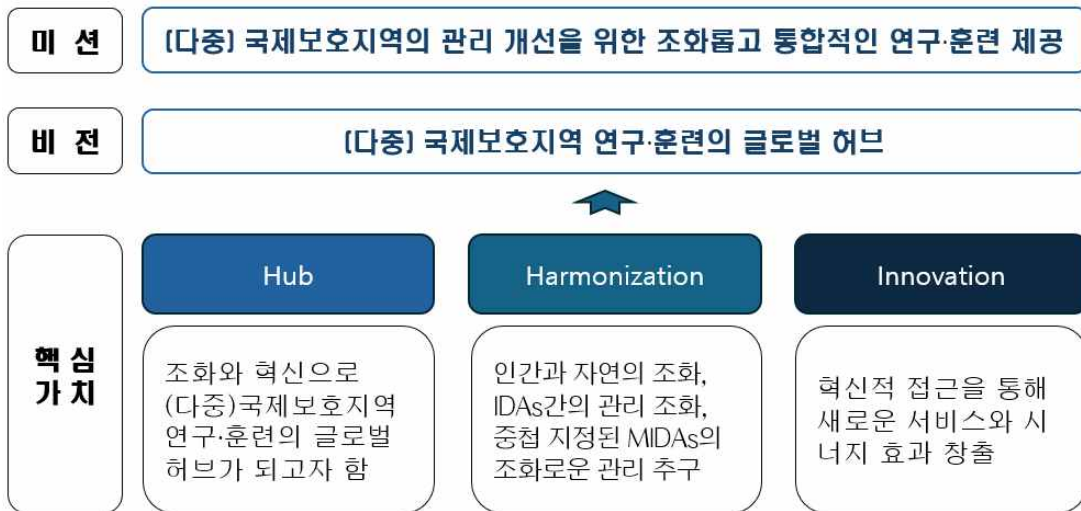
4.1 GCIDA 미션, 비전

가. 미션: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개선을 위한 조화롭고 통합적인 연구·훈련 제공”

나. 비전: “(다중)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

다. 핵심가치

- Hub: 조화와 혁신으로 (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가 되고자 함
- Harmonization: 인간과 자연의 조화, IDAs 간의 관리 조화, 중첩 지정된 MIDAs의 조화로운 관리 추구
- Innovation: 혁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시너지 효과 창출



<GCIDA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 체계도>

4.2 GCIDA 중장기 핵심과제

GCIDA 중장기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은 국제보호지역 및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9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분야 추진 방안

구분	2024 ~	2027~	2030 ~	2040 ~
단계	기반조성	확장	도약	안정화
조직	3팀 10명	3팀 15명	3팀 20명	3팀 30명
예산	12 ~ 18억원	21 ~ 27억원	30 ~ 33억원	40억원

4.2.1 국제보호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IDA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GCIDA가 운영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지원 방식, 전문가 자문단, 웹 기반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요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리제도의 개선, 신규 지정 및 보고 준비 지원 등 IDA 운영기관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4.2.2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

MIDAs 관련 데이터·정보·지식(이하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MIDAs 정보공유 허브는 단순한 정보의 집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MIDAs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정보 아카이빙 구조, 유관 플랫폼 간 협력 체계, 정보 관리 프로토콜 등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또한 정보 분류 체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식 콘텐츠를 확충하여 MIDAs 관련 정보 등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MIDAs 정보공유 Hub는 이해관계자들의 MIDAs 관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GCIDA의 다른 사업 성과를 극대화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GCIDA는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을 통해 MIDAs 관련 지식 콘텐츠 및 정보 네트워크의 허브로의 도약을 도모한다.

4.2.3 MIDAs Guide Book 연구 및 출판 사업

유네스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연구 협력을 통해 전 세계 MIDAs 지역들에 대해 소개하고 홍보하는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MIDAs Guide Book의 콘텐츠는 기존의 여타 연구 사업과 달리 국제기구 등 상위 기관 혹은 세계적 전문가에 의하여 Top-Down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을 소개하는 Bottom-Up 방식으로 마련된다. GCIDA가 지역의 소개와 홍보를 위한 템플릿과 콘텐츠의 확산을 위한 플랫폼(MIDAs 정보공유 허브 등)을 제공하여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MIDAs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MIDAs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와 현안을 풀뿌리 형식으로 수집·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이 중첩 지정을 통해 얻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2.4 MIDAs 네트워크 구축 및 주기적 포럼 개최

전 세계 다중 지정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위해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GCIDA 주도로 MIDAs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출범함으로써 MIDAs 지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MIDAs 관련 관리자 및 UNESCO, 랍사르, IUCN 등 국제기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포럼을 개최하여 MIDAs의 유기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럼은 유네스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홀수 해에는 제주도에서 짝수 해에는 권역별로 순회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GCIDA는 MIDAs 교류·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4.2.5 MIDAs 유기적 관리 매뉴얼 마련

각 MIDAs 지역의 현장 관리자 및 정책 결정자들을 위하여 4대 국제보호지역의 고유 지정 목적을 존중하면서 상호 연계 가능한 유기적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유기적 관리의 우수사례 및 연구사례, 핵심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국제보호지역 맞춤형 사업, MIDAs 정보공유 허브사업, IUCN의 Managing MIDAs 사업 등을 통해 MIDAs의 국제적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MIDAs의 조화로운 관리를 위한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 유기적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MIDAs의 글로벌 관리 역량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4.2.6 e-Campus 및 인증 제도 추진

온라인 학습 플랫폼(e-Campus)과 전문가 인증 제도를 구축하여 국제보호지역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교육 콘텐츠 제공, 수료자 DB 구축, 인증제도를 통해 전문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정책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GCIDA의 국제적 위상과 제도적 신뢰성을 강화한다.

4.2.7 유네스코 연계 MIDAs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MIDAs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본부가 추진하는 중점협력국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MIDAs에 특화된 전문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

아프리카, SIDS 출신, 성평등 등 UNESCO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태계 관리, 지역사회 참여, 국제 기준 적용 등을 교육하며, 현장 학습을 병행한다. 참가자 간 교류와 사례 공유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정책 개선에도 기여한다. 이를 통해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4.2.8 미래세대 국제보호지역 교육과정 개발

미래 세대(Youth)를 대상으로 국제보호지역의 가치를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요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 세계시민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의 교실(ESD)가 될 수 있다. 이에 유네스코 본부 및 제주도 내 관계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청, UNITAR) 등과 협력을 통해 국제보호지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등을 주제로 하는 워크북 및 제주 내 체험학습 프로그램 코스를 개발하고 모집 및 인증 절차 등 교육 과정을 수립 및 운영하여 교육 과정의 효용성과 인지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차세대 리더 육성, 국제 교류 확대, 국내 관리체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한다.

4.2.9 기타 핵심과제

가. 국제환경재정 연계형 사업 발굴 등 자원 다변화 전략 수립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유·무상 ODA와 민관 협력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GCIDA는 관련 재원과 연계한 연구 및 교육 훈련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 등 GCIDA의 전략 사업을 GCIDA는 GEF⁶⁾, GCF⁷⁾ 등 국제환경기금 및 국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원의 다변화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ODA 기여 확대 노력에 부응할 수 있다.

나. 주기적 중장기 계획 환류 및 수립 체계 확립

UNESCO C2C는 6년마다 설립 협정서를 갱신 하여야 한다. GCIDA는 갱신 주기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가 필요하다.

12년 마다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협정서 상의 목적·기능과 실제 운영 성과를 비교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지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협정문에

6)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은 1991년 설립된 다자 환경 금융 메커니즘으로, 기후변화·생물다양성·국제수역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재원을 지원한다.

7)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2010년 UNFCCC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설립이 결정된 국제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Summary

GCIDA의 비전과 가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GCIDA는 기관 운영의 장기적 연속성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 수 있으며 기관의 운영 방향과 국제법적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국제 공동사업 활성화 및 환류 체계 구축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 GCIDA 유관 기관은 UNESCO, IUCN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기여금 기탁⁸⁾, 공동 사업 운영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GCIDA 또한 국제 협력 및 공동 사업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여 국제 기금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GCIDA 사업 운영의 가시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8) 일례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와 IUCN과 체결된 업무협약(MOU) 및 재정 기여 서신 등 그 부속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IUCN에 재정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로 GCIDA와의 협업을 명시하고 있다.